

합성고무, 생산·출하량 모두 증가

일본, 2002년 생산 150만톤에 출하 140만톤 ... 2년만에 증가 전환

2002년 일본의 합성고무 시장은 생산 150만톤대, 출하 140만톤대를 회복하면서 생산·출하 모두 2년만에 증가로 전환됐다.

주력인 SBR(Styrene-Butadiene Rubber)이 타이어 수요호조에 따라 수요·공급 모두 신장한 것을 비롯해 전품목이 2001년 실적을 웃돌았다.

일본 합성고무공업협회에 따르면, 2002년 합성고무 생산은 전년대비 3.8% 증가한 152만1872톤, 출하는 5.3% 증가한 144만9467톤을 기록했다.

2000년에는 생산이 159만톤으로 거의 160만톤에 달했으며, 출하도 150만톤을 넘어서는 등 호조를 보였으나 2001년에는 생산이 7.8%, 출하가 8.4% 감소하는 등 시장침체경향이 뚜렷했다. 그러나 2002년 봄부터 회복추세로 돌아섰고, 2002년 전체실적은 증가를 기록했다.

일본의 합성고무 생산실적(2002)

구 분	생산량	증감률
SBR	685,238	6.9
NBR	90,044	1.1
CR	87,212	1.8
BR	273,621	1.7
EPT	211,157	0.8
기타	174,600	1.8
합성고무계	1,521,872	3.8
수입량	166,822	6.2
수출량	551,958	14.9

(단위: M/T, %)

2002년 SBR 생산은 6.9% 증가한 68만5238톤, 출하는 4.8% 증가한 63만3802톤을 기록하며 전체실적을 끌어올렸다. 또 출하는 NBR(Acrylonitrile-Butadiene Rubber)이 15.0% 증가했고, CR(Chloroprene Rubber)이 7.3% 증가하는 등 신장세가 두드러졌으며 세계적인 타이어 수요증가에 힘입어 수출도 14.9% 증가하는 등 호조를 보였다.

2002년 12월에는 생산이 전년대비 8.8% 증가한 14만1661톤, 출하가 18.6% 증가한 12만7148톤이었고, SBR 출하가 25.3% 증가하는 등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6/26>